

이흥재의 세상만사



1908년 3월8일 뉴욕 루트커스 광장.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대대적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요구는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1975년. 유엔은 이날을 국제 기념일로 제정했다.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이다.

옛그제 제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보내면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을 생각해 보았다. 부끄럽게도 성차별 지표들은 악화 일로다. 우리나라에선 미국에서도 아직 나오지 않은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건만,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여성의 사회 진출 현황은 바닥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임명한 여성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3명)을 제외하면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하다.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여성이堂堂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은 한참 빛이 바랬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역설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은 축소됐다. 우리나라 국회의 여성 비율은 16.3%로 세계 124개국 중 1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하위권이다. 근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여전히 남성 중심의 국가다.

심심풀이 삼아 역대 여성 국회의원의 명단을 한번 쪽 훑어보았다. 헌정사상 첫 여성 의원이었던 임영신, 여성만의 당이 아닌 정당에서 최초로 여성 당수(黨首 : 당 대표)가 됐던 박순천, 그리고 넷타이 매고 남창(男裝)을 한 정치인으로 유명했던 김옥선, 공화당 전국구 의원을 지낸 시인 모운숙 등의 이름이 눈에 띈다. 초대 여성 국회의원은 딱 1명이었다. 여성 의원이 5명을 넘어서는 것은 유신으로 유정회가 구성된 9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했다.

박혜자·권은희·양향자는 과연

최초의 여성 의원은 제헌국회의 임영신(경북 안동) 의원이다. 옛 신문을 보니, 1949년 보궐선거를 통해 ‘유림(儒林)의 고장’에서 당선된 임 의원의 당선 인터뷰가 재미있다. “안동은 완고하고 배타주의적인 곳이요 여성을 멸시하는 풍속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나, 이제 이와 같은 고풍은 완전히 타파된 셈입니다.”

월제어를 타고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의원은 17대

유리천장을 깨는 여성 정치인들

국회 장항숙 의원이다.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인이 된 장 의원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최초의 다문화가정 출신이다.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18대 총선까지 지역구에서 당선된 광주 여성 국회의원은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 16대 김경천 의원(광주 동구)이 유일했다. 이후 19대 총선에서 박혜자(광주 서구 갑) 민주당합당 의원이 당선돼 ‘광주 여성 의원 2호’가 됐다. 2014년 7·30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된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두 의원은 이제는 서로 다른 당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다.

과연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광주 지역 역대 최대 여성 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까. 이번 총선 출마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난다.

하지만 세인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박혜자·권은희 두 현역 의원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더민주 영입 인사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당선될 수 있을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일단 박혜자 의원(서구 갑)은 광주 8개 선거구 중 더민주당 소속으로는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재선에 당선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박 의원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초선 의원으로서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당선을 보장해 줄지는 알 수 없다. ‘광주 최후의 더민주 현역 의원’인 박혜자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인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을 놓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며 때로는 독심 있게 밀어붙여 대회 개최를 위한 마수결이 국비 확보에 기여했다. 또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들이 매년 신규 채용시 지방 대학생을 35%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을 제정했고, 상무소각장 대체시설 등의 국비 확보에도 성과를 냈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박 의원의 활동을 어느 정도만 평가해 준다면 재선의 고비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넘어야 할 벽 두텁고 두텁지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역시 초선 의원답게 묵묵히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 왔다. 그의 활약상은 이미 전에도 언급한 바 있다. (‘50년을 기다렸다’ 그곳에 오를 날’, 본보 2015년 9월18일자) 출가차게 무등산 정상 of 군부대 이전 문제를 파고들여, 드디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냄으로써 언젠가 무등산 정상을 시민의 품에 안겨 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광주여성 출신 고졸 신화,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서구 을)가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남들에게는 전설처럼 회자되는 얘기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밑바닥(연구 보조원)에서 시작해 처음으로 최고(임원)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성공 스토리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얼마나 자극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과연 여성이라는 유리천장을 또다시 깰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박혜자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송갑석 후보를 이기더라도, 상대 당에 송기석·이건태·정용화 등 경쟁한 인물들이 대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은희 의원 역시 장관 출신인 더민주의 이용섭 전 의원과 합겨온 싸움을 벌여야 할 판이고, 정치 신인인 양향자 전 상무는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의 벽을 넘어야만 한다. 이들 세 명 외에도 이 지역에서는 많은 여성 후보들이 20대 총선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인물 중심의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성 후보들의 선전이 기대된다. 눈에 보이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인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먼저 깨고 앞서나가는 이들이 있을 때, ‘여성이堂堂한 사회’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주필)

완벽한 이세돌... 더 완벽한 알파고

송태곤 9단 “설명할 수 없는 바둑”

이세돌 “완벽...3국도 쉽지 않을 것”

“이세돌 9단의 바둑은 완벽했다. 그러나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는 그 완벽을 뛰어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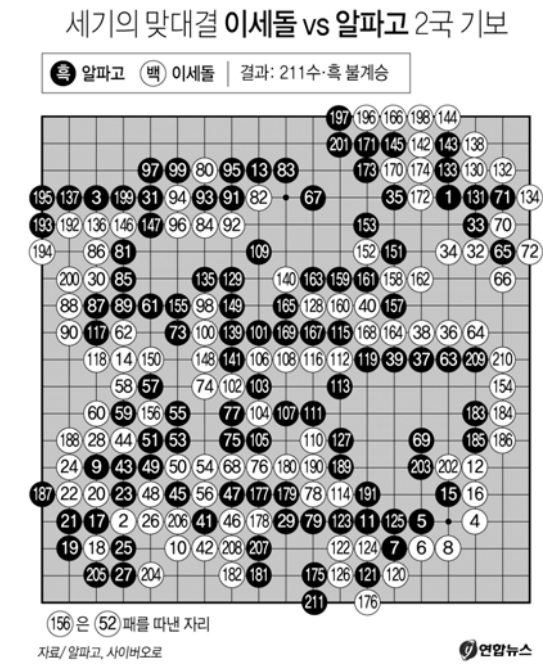
세계 최고의 바둑 실력으로 ‘인류 대표’로 나선 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 제2국에서 211수 끝에 백 불계패하자, 프로바둑 기사들과 관전하는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TV로 바둑을 중계하던 송태곤 9단은 “분명히 이세돌 9단이 우세한 바둑이었지만, 계가를 해보면 밀리고 있어 오히려 형세가 역전됐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는 모르겠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 9단은 초반 변칙수를 무난하게 막아내며 중반까지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다. 특히 이세돌은 중반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다 후반에서 흑집을 부시 집으로 다소 앞섰다. 그러나 알파고가 중앙 백 대마를 공격하자 갑자기 흔들리고 말았다. 위기를 느낀 이세돌은 좌상중앙의 다섯 점을 때주고 우상구 흑집을 도려냈다.

하지만 이 바퀴치기는 명백히 이세돌의 실패라는 게 프로기사들의 평가다. 바퀴치기에 실패하면서 형세는 우세를 가릴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오히려 집이 다소 부족했다.

현대 바둑에서 가장 유행하는 양 화점 포석은 실리와 세력의 균형을 맞추는 전법이지만 소목 포석은 실리를 추



구하는 작전이다. 이세돌과 프로기사들을 더욱 놀라게 한 수는 13수째다. 알파고는 우하귀에서 정석을 늘어놓다 갑자기 손을 빼고 상변에 ‘중국식 포석’을 펼쳤다. 알파고는 37수로 우변 백돌에 입구자로 어깨를 짚었는데 프로 바둑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수다.

외의의 수를 당한 이세돌 9단이 10분 가까이 장고하다 중앙으로 밀어 올리자 알파고는 한 수만 받은 뒤 이번에는

좌하귀로 방향을 틀었다. 좌하귀에는 알파고가 먼저 전투를 걸었지만, 이세돌이 하변을 타개하면서 좌변에도 집을 만들어 미세하게나마 앞선 채 중반으로 돌입했다. 그러나 좌상중앙 전투에서 실패해 형세가 나빠지고 말았다.

인간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은 인공지능 알파고에 충격의 2연패를 당하고 이들 뒤로 예정된 제3국에 대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세돌 9단은 “굉장히 놀란 것은 어제 충분히 놀랐고, 이제는 할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용상 정말 완패였다”며 “조금도 한순간도 앞섰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담담하게 설명했다.

또 이세돌은 “(알파고한테서) 특별히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어제는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 했는데, 오늘은 알파고가 완벽한 대국을 펼쳤다”고 완패를 인정했다. 알파고의 약점은 무엇이나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이세돌 9단은 “약점을 못 찾아서 두 번 다 진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중국 매체 소속 기자가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세돌 9단이)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한다’고 전하자 이세돌 9단은 웃으면서 고개를 가우뚱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의미의 제스처였다.

이세돌 9단은 제3국에서 대해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의 전망을 하면서도 “오늘 바둑으로 볼 때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어렵다”며 “그전에 승부를 가려야만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갈 것 같다”고 희망을 놓지 않았다.

/박기용기자 pboxer@·연합뉴스

“이세돌다운 자신감 안 보여

승리 집착 버리고 대국하길”

오규철 9단 관전평

“충격이다. 이세돌다운 자신감이 안 보였다. 상대가 감정이 없는 기계라는 점이 세돌이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10일 알파고와 2국에서 백을 잡은 이세돌 9단이 211수 끝에 항복을 선언했다. 이를 광주 자신의 사무실에서 TV중계로 지켜보던 오규철 9단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 9단은 “알파고는 대국이 좋만으로 갈수록 치밀하고 강해지는 것 같다”면서 남은 대국도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1, 2국을 지켜본 결과 알파고가 작은 실수를 하는 등 완벽적인 실수 없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알파고가 감정이 없고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기계라는 점이 세돌이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인이 된 이세돌의 부친과 교류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를 지켜본 오 9단은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는 시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했다. 현재 이세돌의 기량이 전성기보다 떨어진데다 최근 잇따라 국제대회를 치른 뒤 컨디션이 저조한 상태에서 너무 큰 경기에 임했다는 것이다.

오 9단은 “지금 세돌이의 기량은 전성기(5~10년 전)때와 비교하면 70~80% 수준인데다 농심배에서 중국의 커제에게 패배한 직후라서 컨디션도 좋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래도 세돌이가 세계 초일류 기사인 만큼 남은 대국에서 승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국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원모집

㈜나라판넬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한 제품, 판매조직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마인드를 기본으로 (주)나라판넬의 조직 문화를 느끼며 함께 성장할수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분 및 자격요건				
근무지	모집부분	인원	자격요건 및 업무	제출서류
광주영업소	관리부	남 0명	총괄관리자	* 경력사원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여 0명	사무보조	
	영업부	남 00명	국내영업 유경험자	
			건축영업 유경험자	
순천본사	관리부	여 0명	판매관리 및 사무보조	* 공통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부	남 0명	공무, CAD가능자	
	영업부	남 0명	국내영업 유경험자	
	생산부	남 0명	단순제조원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 전형절차 : 서류전형 및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접수기간 및 방법

- 마 감 일 : 2016년 3월 15일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31 (주)나라케미칼)
- 문의사항 : (주)나라판넬 관리부 061)727-8058 (주)나라케미칼 관리부 061)381-8058

NARA (주)나라판넬 (주)이오판넬 (주)나라 T.L.B (주)나라케미칼

경매학원 금맥강좌

경매 실무 위주 단기 강좌입니다. 경매에 관심있는 분이나 컨설팅트업에 도전하려는 분은 지금 연락주시시오. 경매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은 열립니다.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경매 완전 초보에서 실전 투자까지 1개월 완성입니다.

매월초 개강

•시간

오전반	화·목 10:00~12:00
오후반	화·목 19:00~21:00
주말반	토·일 14:00~16:00



- 장소 : 장동로터리 한국토지경매 4층(지하철 문화전당역 5분)
- 과목 : 실전경매(1개월 완성)
- 교수진

한국토지경매연구원장 김광민 (주)Today 옥션 소장 이은진

실전경매 고수 양성의 요람
한국토지경매학원
☎ 062-229-1512

(제28기)결산공고

재무상대표		(단위: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 산	신 수	부 채	채
1. 유 동 자 산	11,545,353,920	1. 유 동 부 채	26,046,273,171
(1) 외 국 지	9,819,991,797	1. 매 입 채 무	2,635,082,078
1. 환 금 및 현 금	1,425,084,719	2. 매 입 차 입	586,446,645
2. 당 기 금 융 상 조	604,800,000	3. 당 기 차 입	17,100,000,000
3. 매 출 채	6,285,235,136	4. 선 수	329,986,823
4. 당 기 수	332,877,928	5. 매 출 수	56,894,374
5. 선 수	294,838,880	6. 이 자 금 비 용	1,014,711,698
6. 이 수	3,400,633	7. 매 입 차 입	615,940,740
7. 선 수	19,080	8. 매 입 차 입	12,309,300
8. 선 수	658,595,058	9. 선 수 수 익	163,010,285
9. 기 타 의 당 자 산	99,184,727	10. 유 동 상 각 기 타 지 금	4,554,122,556
10. 유 약 대 리 청	68,700,000	11. 환 제 가 치 할 인 차 금	1,504,543,328
11. 이 연 법 인 세 지 산	47,255,666	12. 이 대 보 증 금	480,550,000
(2) 채 고 자 산	1,725,362,023	1. 장 기 차 입	32,485,534,551
1. 자 장	1,725,362,023	2. 장 기 차 할 인 차 금	5,000,000,000
(1) 유 동 자 산	97,337,149,839	3. 장 기 차 할 인 차 금	1,184,675,470
(1) 투 자 자 산	13,668,022,241	4. 장 기 차 할 인 차 금	33,499,544,783
1. 장 기 금 융 상 조	5,000,000	5. 장 기 차 할 인 차 금	1,847,158,657
2. 매 도 가 능 증 권	2,188,833,648	6. 장 기 차 할 인 차 금	1,788,173,693
3. 지 분 법 적 물 투 자 수 익	11,674,188,563	부 채 총 계	58,532,107,722
(2) 유 행 자 산	79,031,739,783		
1. 토 지	1,396,055,225	자	채
2. 건 설	3,035,514,475	1. 자 본	5,200,000,000
3.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514,571,926)	1. 보 존 자 본	5,200,000,000
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23,679,676,686		
5.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9,292,604,607	II. 자 본 잉 여 금	1,089,280,269
6.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1,297,051,714	1. 기 타 자 본 잉 여 금	1,089,280,269
7.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02,833,338	III. 기 타 포괄 손 익 누 계 액	(80,238,726)
8.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53,096,760)	1. 매 도 가 능 증 권 및 가 이 익	514,800,000
9.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10,079,260	2. 매 도 가 능 증 권 및 가 이 익	33,499,544,783
1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38,288,936)	3. 지 분 법 자 본 잉 여	(535,038,726)
11.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848,369,925		
12.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848,369,925)	IV. 이 익 잉 여 금	44,081,374,394
13.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0,378,366,136	1. 법 정 적 립 금	1,470,000,000
1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2,904,298,303	2. 임 의 적 립 금	46,990,000,000
15.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825,617,361)	3. 미 차 분 이 익 잉 여	(4,369,625,606)
16.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437,387,815		
17.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072,018,208	자 본 총 계	50,350,395,937
18.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365,399,607	부 채 자 본 총 계	108,882,503,659
19.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08,882,503,659		

위와같이 공고함.

2016년 3월 11일

광양 선박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성용

위 재무상대표를 포함한 제 28(당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양회계법인 대표이사 서진석